

“서남권 반도체 투자 효과, 지역기업·일자리로 연결해야”

광주경제일자리재단, ‘경제·고용 Focus Issue’ 발간 전남광주 맞춤형 경제·고용 생태계 구축 방안 제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효과를 지역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고용·노동정책을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주요 현안과 정책동향,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남광주 경제·고

용 Focus Issue’ 제1호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남광주 경제·고용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전략’과 주요 기업의 투자계획, 지역 경제·고용 여건 등을 분석하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재단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제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등 경제·고용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역 제조기업의 역량을 진단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단계적 전환을 지원해 반도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기업이 대기업 투자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생산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

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력양성도 산업 수요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별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교육훈련과 현장실습, 채용을 연계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한 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의 질과 산업안전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사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경제·고용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교육·훈련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산업 변화에 따른 기업과 인력 수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대규모 투자의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인재의 취업·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고용·노동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호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에 공문으로 배포되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은 앞으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주요 현안과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해 후속 조치를 수시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반도체 기대감에 광주 부동산 소비심리 ‘꿈틀’

광주 지수 5.7p ↑ ‘108.0’…주택매매 심리 10.5p 급등 실수요 중심 반등 기대감…전남 102.4로 하락 ‘온도차’

광주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10.5p 급등해 상승국면에 진입하면서 얼어붙었던 매수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반면 전남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소비심리가 하락하며 광주와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18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7월 광주 지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8.0으로 전월 102.3보다 5.7p 상승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사이의 값으로 산출되며 100을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엇갈린다. 국토연구원은 지수 95 미만을 하강국면, 95 이상 115 미만을 보합국면, 115 이상을 상승국면으로 구분한다.

광주의 경우 전체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보합국면에 머물렀지만, 상승 폭은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 주택시장(주택+전세) 소비심리지수는 110.3으로 전월 104.5보다 5.8p 상승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5를 기록하며 전월 105.0보다 10.5p 급등했다. 이에 따라 광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7월 들어 상승국면에 진입했다. 올해 3월 92.0까지 떨어졌던 광주 주

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5월 106.0, 6월 105.0을 거쳐 7월 115.5까지 올라갔다. 불과 넉 달 사이 23.5p 상승한 셈이다.

전세시장 역시 소폭 개선됐다. 광주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105.0)는 전월보다 1.0p 상승하면서 주택시장 전반의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토지시장 소비심리자수도 83.1에서 87.7로 4.6p 상승했다. 토지시장 자체는 여전히 하강국면이지만 주택과 토지를 아우르는 부동산시장 전반에서 소비자들의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와 산업기반 확충이 추진되면서 관련 기업과 인력 유입,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가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산업 투자 효과가 실제 주택 수요와 거래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만큼 현재의 소비심리 반등을 산업 호재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은 광주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7월 전남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4로 전월 104.3보다 1.9p 하락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자수도 105.3으로 전월 109.3보다 4.0p 떨어

졌다. 주택전세시장 역시 105.0으로 전월보다 0.7p 하락하며 전반적인 주택시장 심리가 위축됐다.

전남에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토지시장이다. 7월 토지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77.8로 전월 75.9보다 1.9p 상승했다. 다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하강국면에 머물러 부동산시장 전반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광주와 전남의 엇갈린 흐름은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는 도심권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와 선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격 및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살아나는 분위기다. 반면 전남은 지역별 미분양 부담과 인구 감소,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세 회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주의 심리 반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본격적인 시장 회복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그동안 관망하던 실수요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금매물이나 선호도가 높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앞으로 몇 달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광주 게임산업 협력 교류회’를 열고 광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ICON-인터넷기업협, 게임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업 교류 확대 등 공동사업 발굴 추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최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광주 게임산업 협력 교류회’를 열고 광주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류회에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를 비롯해 아람게임즈, 지니소프트, ㈜제이커브엔터테인먼트, 킷캣, 제로켓, DDD 등 지역 게임기업과 한국인터넷기

업협회 및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ICON은 교류회에서 광주 게임산업의 현황과 주요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게임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협력 수요 등을 공유했다. 이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판로 확대와 협력 기회 발굴, 성장 지원 등에 힘을 계속했다.

력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역 게임기업과 국내 게임산업 관계자 간 접점을 넓히고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GICON의 설명이다.

광주글로벌게임센터는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게임기업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게임기업의 판로 확대와 협력 기회 발굴, 성장 지원 등에 힘을 계속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동·고용 연구과제 수요조사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노동·고용 분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7년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의 산업구조·고용환경 변화 등 노동·고용 분야 전반의 현안과 정책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노동·고용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gjep.or.kr/)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메일(dsparm@gje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노사상생추진단 노동연구팀(062-960-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는 최근 여수시청 이순신홀에서 올해 임·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상생발전 위한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자치 여수시청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노사민정협 ‘맞손’

임단협 체결·상생발전 공동선언…6년 연속 무분규 타결

여수산단 플랜트건설 노사가 2026년 임·단체협약을 체결하며 6년 연속 무분규·조기 타결을 달성한 가운데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상생발전 공동선언을 선포하고 지역 상생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이순신홀에서 전광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지부장 김중주)와 여수산단건설업협회(회장 정성호)를 비롯해 서영학 여수시장,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장, 배지연 고

용노동부 여수지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임·단체협약 체결·상생발전 공동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임·단체협약은 지난 5월 26일 첫 상견례 이후 22차례 교섭 끝에 타결됐으며, 지난 6월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88%로 가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능공·조력공·상근사(지부장 김중주)와 여수산단건설업협회(M/T) 수당은 6800원, 용접 RT 수당은 3400원 각각 인상된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AI 시대 청년 일자리 4년간 27만개 감소

감소 일자리 94% AI 고노출 업종…고학력 타격 커 한은 “AI 구조적 변화 가속…경력 사다리 구축해야”

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 가운데 94%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AI가 청년 고용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보다 기존 채용·업무 방식의 변화를 가속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에 따르면 2022~2026년 사라진 청년층 일자리 28만5000개 중 26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 집중됐다.

청년 고용 감소는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식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2022년 6월과 비교해 청년 취업자 수는 정보서비스업에서 31.4% 감소했으며 출판업(-27.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16.6%), 전문서비스업(-11.6%)에서도 큰 폭으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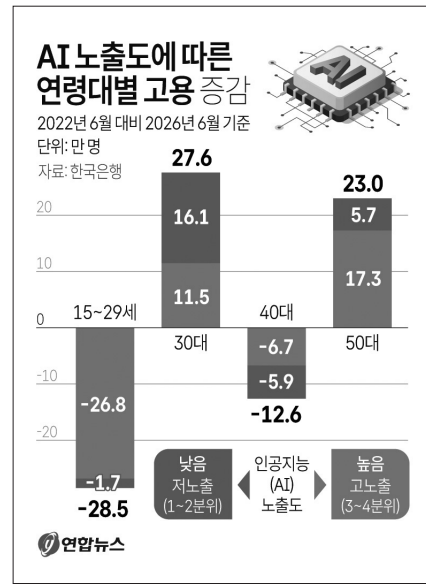
반면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개 증가했고, 이 가운데 17만3000개가 AI 고

노출 업종에서 늘었다.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도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흐름이 엇갈린 셈이다.

직업별로는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 약화가 두드러졌다. 생성형 AI가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인지적·분석적 업무를 고학력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담당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졸 청년층의 확장실업률도 악화됐다. 챗GPT 출시 이전에는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보다 낮았지만 2022년 11월 이후 평균 9.4%로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8.5%)보다 0.9%p 높아졌다. 한은은 공식 실업자뿐 아니라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취업자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고노출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가 나타나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축은 노동시장 유입 감소와 기존 일자리에서의 유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고노출 업종에서 이탈한 청년 가운데 일부가 실업으로 이동했으며,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도 이 같은 고용 이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배경에는 AI의 연공 편향적 기술변화와 함께 팬데믹 당시 과잉 채용의 정상화, 경력직 선호, 재택근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기업들이 산업에 특화된 경력자를 선호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할 유인이 줄었고, 재택근무로 주니어 직원의 업무 습득 기회가 감소한 반면 경험과 숙련을 갖춘 시니어 직원의 상대적 생산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오상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AI를 최근 청년 고용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I는 청년 고용 위축의 원인이자 기회보다 기존의 채용과 업무방식의 변화를 가속하거나 증폭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